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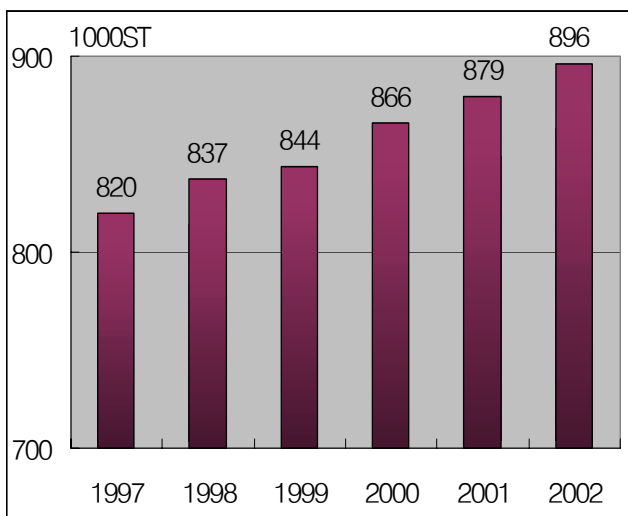
황산칼륨, 농업용 수요 꾸준하다!

미국, 2006년까지 연평균 1.6% 성장 ... MPO 틈새시장 개척이 과제

미국의 황산칼륨(Postassium Sulfate)의 수요는 2001년 87만9000톤, 2002년 89만6000톤을 기록했으며 2006년 96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량은 생산량과 수입량(2001년 10만9000톤 및 2002년 13만5000톤)의 합과 같고 수출량(2001년 60만1000톤 및 2002년 63만톤)보다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황산칼륨 수요 변화



Postassium Sulfate의 소비구성은 특수비료(담배 감귤 포도 감자 같은 Nongrain용)가 91%, 동물사료용 칼륨 첨가제가 8%, 농업용(식고판촉진제/폭약 발광억제제/약품)이 1%이다.

Basic Elements Manufacturing은 2001년 3월 유타주 Grantsville에 황산칼륨 4만톤 플랜트를 신설 가동했다.

IMC Global은 부채탕감을 위해 유타주 Ogden의 황산칼륨 플랜트를 2001년11월 Apollo Management LP에게 매각했다.

Ogden 플랜트는 IMC Global이 1998년 Harris Chemical Group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의 회사 이름

인 Great Salt Lake Minerals 플랜트로 가동되고 있는데 Great Lakes Minerals은 Compass Minerals Group의 자회사이다.

미국의 황산칼륨 생산기업

(단위: ST)

회사명	생산능력
Basic Elements Manufacturing, Grantsville, Utah(1)	45
IMC Potash, Carlsbad, N.M.(1)	200
IMC Potash, Carlsbad, N.M.(2)	1,100
Great Salt Lake Minerals, Ogden, Utah(1)	600
합 계	1,945

IMC Kalium은 1999년 중반 IMC Kalium 및 Western-Ag Minerals을 합병해 신규 프로세싱 플랜트를 신설 했다. 신설과정에서 Western-Ag 플랜트는 영구히 폐쇄됐고 IMC Kalium은 IMC Potash로 이름을 바꾸었다.

<화학저널 2004/06/30>